

#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11기를 열어갑시다

## 생존 아닌 공존의 2019

2019년, 자력현장의 실내용을 밝히고 채워가자며 달려온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10기 2년 동안 지부는 양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17개 사업장 3천명 조합원이 늘어나 사업장이 다양해지고 나이도 성별도 경험도 다양해졌습니다. 정권은 우회전하고 저성장시대 자본의 공격이 힘을 얻어가는데, 자칫 우리 공감대가 흐트러지면 개별 사업장에서 시작될 공격이 지부 전체의 생존이 걸린 싸움으로 변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위기감을 공유하고, '처음과 끝 함께'의 태세로 한 해를 살았습니다. 신생사업장은 대부분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개별사업장에서 자본의 공격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사업장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역의 사업장들이 함께하고 조합원이 십시일반 돕는 것이 이미 경기지부의 기풍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력현장 인터뷰를 통해 고참사업장은 30년 노조를 지켜온 소중한 가치와 새로운 세대의 고민을 조화하려 노력하고, 신참사업장은 오래 건강하게 농사지를 노동조합 초석을 잘 놓기 위해 분투하며, 중견사업장은 하루하루 자력현장의 DNA를 새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함께 갈 때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최선의 역할을 찾아 도우며 함께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한 해였습니다. 2019년 경기지부 조합원의 일상은 생존이 아닌 공존을 위한 일상이었습니다.

## 1만 조합원 시대, 새로운 10년을 여는 11기

11기 지도부 구성도 본격화됩니다. 사업장 대부분은 임원선출을 마쳤습니다. 지부 임원선출은 지부 전통대로 사업장 논의를 거쳐 함께 11기 임원 후보를 구성했습니다.(아래 사진)

대외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2020년, 위기에 대비하는 태세를 철저히 갖추기 위해 집단교섭 통일요구로 전체 투쟁전선 구축. 신생사업장과 새로운 세대 조합원 폭발적 증가에 발맞춘 노동조합 운동의 질적 성장-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공감대와 공동체감각 강화, 조직확대사업은 지금까지처럼 특별한 누군가 아닌 모든 사업장의 주체적 참여로 만들어가자는 고민을 담았습니다.

10기 **자력현장 뒷배지부**는 단결불패의 정신으로 만들어 온 경기지부 조합원의 실천의 산물이었습니다.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11기는 이러한 승리의 역사를 더욱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원년이 되도록 8천 조합원과 함께 쉽 없이 전진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희망 넘치는 내일을 위해!



△ 사진 아랫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지부장후보 정구양-사무국장후보 김영신-수석부지부장후보 윤옥동-부지부장후보 이운열-부지부장후보 원용훈

#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찬 경기지부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지부장 정구양입니다.

2017년 3월 8일 경기지부 10기 지도부를 출범하면서 우리는 '각 사업장에서 스스로 자본의 탄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그 힘을 지부로 규합하여 약한 사업장을 옹호하자'는 의지로 자력현장, 뒷배지부를 사업목표로 삼았습니다. 새롭게 노동조합을 시작하는 동지들을 비롯해 각기 다른 조건에 다양하게 처해 있는 모든 사업장에 김장을 담아줄게 아니라 김장하는 법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했던 2년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슴 아팠던 일도 있었고, 투쟁 승리의 기쁨도 느꼈고, 새로운 식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조직 확대의 기쁨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0기 2년 동안 함께해 주신 운영위원, 집행위원 동지들과 조합원 동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기 마지막 운영위원회에서는 현직 지회장과 신입 지회장들이 인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정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앞으로 여기서 일할 사람들을 위해서 노조를 만들고 떠나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이제 은퇴하시는 금토일산업지회 전병욱 지회장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말 꺼내면 항상 모두를 웃게 했던 우창정기지회 김도영 지회장님은 “이제 지회장은 다시 안 하고 싶다”며 마지막까지 모두를 웃게 해주셨습니다. “지회장에서 물러나지만 어떤 역할을 맡든 조합원으로서 내 일을 다 하겠다”던 인지컨트롤스안산지회 이재송 지회장

님의 얘기에서 10기 내내 현장을 뒤흔드는 투쟁을 만들어 온 인지지회가 내년 또한 묵직한 한 해를 이어갈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 지회장이 되어 운영위원회에 참가한 신임 지회장님들을 통해 다가올 2020년을 맞는 긴장과 설렘도 느꼈습니다.

올해도 함께 또 한 해를 보내고 오늘도 동료로서 조합원으로서 간부로서 서로의 옆에서 서로를 지탱하고 있는 서로에게 모두 “고맙다, 올 해도 고생했다” 한 마디씩 하시며 등 두드리고 격려하고 꼭 안아주며 2019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0년에는 조합원 동지들의 건강과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 운영위원회에서 작별인사를 하는 전병욱 금토일산업 지회장(위 사진), 제일 처음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바람에 이후로 지회장이 바뀌는 모든 사업장이 일어나서 인사하게 됐다. 대원안산, 대원평택, 대창, 삼화, 에스제이엠, 우창, 인지, 주연 등 예년에 비해 많은 사업장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다.